

# 지역별 건강복지 격차 해소 · 시민 건강 수준 높인다

## 남부·서부·동부 등 3개 권역서 운영

익산시가 '주민 생활 밀착형 보건복지'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별 건강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남부·서부·동부 3개 권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센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부 센터의 경우 2년 연속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실질적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 ▲남부권: 시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전북권 최초로 문을 연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업·뱃살 속 운동교실 △다이어트 건강운동교실 등 노년층 대상 신체활동 중심 프로그램과 △단짠 내리고 건강 올리고 영양교실 △내혈압·내혈당 바로 알기 교육 등 만성질환 예방 교육이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이동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는 소생활권 맞춤형 이동건강체험관과 건강플러스 스마일 경로당 만들기 등을 통해 보건 의료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도도 높다. 만족도 조사 결과 운동 프로그램 참여자 중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3.9%인 것으로 조사됐다.

### 남부권, 전북 최초로 문 열어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

### 서부권, 어린이건강체험관 조성 전 세대를 위한 건강 플랫폼 운영

### 동부권, 부족한 보건 의료 인프라 보완... 노년층 건강관리 집중

### ▲서부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를 위한 건강 플랫폼

지난해 4월 개관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한다. 모현동과 송학동, 오산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센터 내부에 전북 최초로 조성된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이 특징이다. 4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7개 건강 테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현재 개소 1년 만에 105개



보육기관, 2,366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성인 비만 관리를 위한 '퍼펙트바디 운동교실', 중장년층 대상 '경년기 건강교실', 노인 대상 '실버건강교실', '다이로운 건강강좌'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 ▲동부권: 의료취약지역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어촌 지역(금마면, 왕궁면, 팔봉동)을 중심

으로 하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부족한 보건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고령화된 지역 특성상 노년층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UP 혈관지킴이교실', '기억속속 뇌튼튼교실', '관절튼튼 즐거운 운동교실' 등 노년층 대상 만성질환 예방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건강 위험군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근육짱짱 플러스교실'은 하루 평균 80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우리 동네 헬스장'으로 자리

잡으며 건강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 생활 실천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진우 보건소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건강한 익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